

타이완의 대형 배자에 감동받은 전직 중공 고관이 탈당하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의 날씨는 맑고 상쾌했다. 6천 3백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배자(排字)로 '파룬도형'과 '파룬창환(法輪常轉)' 네 글자를 만들었다. 성대하고 장엄한 장면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특히 중국대륙 관광객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었다. 많은 사람은 대회장 주위에 설치된 파룬궁 진상 사진을 통해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잔혹한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관해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많은 중국인은 파룬궁 수련생의 도움으로 '3퇴(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 성명을 했다.

전직 중공 고관이 탈당하다

"자유광장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정말 자유롭겠네요! 파룬



2015년 11월 28일 6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배자로 만든 '파룬도형'과 '파룬창환'

궁 수련생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두(杜) 선생 일행 일곱 명은 허베이에서 타이완으로 자유여행을 왔다. 그들은 자유광장을 거닐다 마침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파룬궁의 대형 배자 활동을 보게 되었다. 특히 두 선생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선생 부부는 이전에 정부 고위 관직에 있었다. 자유광장 아래 진상 전시판에는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가담했다가 악보를 받아 낙마한 중공 관원의 명단이 있었고, 두 선생이 큰 관

심을 보였다. "나는 그들이 모두 탐오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모두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어요." 두 선생은 감격한 표정으로 파룬궁이 사실은 아주 좋은 공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금 연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타이완에 이렇게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타이완의 자유가 정말 부러워요."

두 선생 부부는 최근 대륙에서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풍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해외 많은 국가의 사람이 장쩌민 고발 활동에 참가했다는 말을 듣고는 "당연히 고발해야죠."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두 선생의 부인은 전시판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 보았고, 결국 두(杜) 선생 부부는 탈당성명에 동의했다.

영화 '생체 적출'이 캐나다 영화제 관객을 놀라게 하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1일 캐나다 켈거리의 '마르다 루프 정의(正義) 영화제'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생체 적출(Human Harvest)'이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생체 장기적출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공(중국공산당)의 잔인하고 참혹한 박해를 폭로해 모든 관객을 놀라게 했다.

데이비드 킬고어는 특별초청 귀빈으로 상영회에 참여했다. 켈거리 글렌모어(Glenmore) 선거구 의원 아남 카짐(Anam Kazim)은 축사를 통해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마르다 루프 정의 영화제는 2006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11월에 열린다. 이 영화제는 일주일에 걸쳐 주로 인권, 환경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 많은 연구원, 정부 공무원과 사회문제에 예민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입선작 21편은 91개 국 900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중



에서 선정됐다.

'생체 적출'(일명 '다윗과 골리앗')은 밴쿠버의 영화 제작자 리원상이 감독을 맡았다. 영화 속 해설자인 두 명의 데이비드(다윗)는 각각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다. 내용은 주로 중공 정부의 불법 장기적출에 관한 단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영화는 올해 4월, 미국 방송TV 문화상인 제 74회 피바디상(Peabody Award)을 수상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인이 '퇴단 퇴대'하다

[장쭈 투고] 내가 한 번은 사무실에서 고객을 도와 제품을 분석해 주었다. 제품의 품질과 판매자의 신용을 말하게 되어 나는 그에게 내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띄엄띄엄 말했다. "어쩐지, 가까운 데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먼 데 있는 당신을 찾아온 건 신이 인도한 것이겠죠." 원래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숨김 없이 말했다. "파룬궁은 부처 수련을 한다면서 왜 정치에 참여하고, 사람들한테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를 믿나요?" "믿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나요?" 그녀는 확고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예수도 믿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도 믿네요." 그녀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문득 깨달은 듯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단, 대에 가입했었어요. 나를 빨리 탈퇴시켜 주세요."

‘장쩌민 고소’를 조사하러 온 경찰이 웃으며 ‘3퇴’하다

[밍후이왕] 나는 금년 6월 초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현지의 파출소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20여 세로 보이는 지역 경찰 2명과 주민위원회의 젊은 여직원이 함께 집으로 찾아와 상급의 지시라며 사실을 재차 확인하려 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장쩌민을 고소한 건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누가 당신들을 보내서 소란을 피우나요? 나는 장쩌민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을 파견한 사람도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찾아 온 것도 연분이니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중공은 하나의 무신론 조직입니다. 가입 당시에 여러분한테 주먹을 쥐게 하고는 자기들을 위해 종신토록 분투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시켰는데, 당신들은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봤나요?” 그들은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다.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일종의 약속이고 승낙입니다. 사람이 맹세를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독한 맹세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한테는 생로병사가 있고, 왕조에는 흥망성쇠와 교체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탄생하고 발전하고 멸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현재 세계에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는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4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두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이들이 모두 어떤 국가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폭정은 어떤 것이든 모두 단명했습니다. 공산진영 우두머리였던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됐는데, 그게 지도하고 육성한 중공은 또 얼마나 같까요! 여러분은 주먹을 쥐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했으니 바로 그의 편에 선 겁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때에 바로 여러분의 서약이 실행될 겁니다.” 그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사람들이 천백 년 동안 선과 악에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말을 해왔는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중공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이보다 더 사악하고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현재 이미 2억 2천만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3퇴)한다고 성명했어요. 고위 관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3퇴’해서 스스로 살길을 남겼고, 여러분 계통의 똑똑한 사람들도 모두 일찌감치 탈퇴해 평안을 보장받았어요. 우리 집에 온 것도 연분이니 잘 생각해 빨리 ‘3퇴’ 성명을 하세요. 중공에 헌신하겠다고 한 독한 맹세를 폐기하고 목숨을 구하세요! 여러분은 당원인가요?” “아니요. 소선대와 공청단에만 가입했었습니다.” “신불은 사람의 일념을 보니까 여러분은 태도만 표시하면 돼요. 제가 지은 가명으로 탈퇴하면 되겠죠?” 이어 내가 각자의 가명을 지어 주자 두 처녀는 길상한 가명을 듣고 즐겁게 웃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파룬궁은 병 치료나 몸 건강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공이 아니고 높은 경지의 불가 수련대법입니다. 우주의 ‘진선인(真善忍)’ 특성에 따라 끊임없이 정신적인 경지를 높이면 물질 신체도 자연스럽게 병이 없고 가벼운 상태가 되죠. 현재 파룬궁은 이미 세계 백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이르는 곳마다 사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덕을 되살리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지

하고 있어요. 중국대륙에서는 공안부가 사교 14개를 지정하면서 파룬궁을 제외시켰는데, 수련자가 많은 걸 질투한 장쩌민이 법을 뛰어넘고 천의와 민심을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박해를 시작했죠. 장쩌민은 백성을 속이고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려고 천안문 분신자살극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걸 도둑이 판 사람을 도둑이라고 외치는 치졸한 짓이에요. 당시 직접 분신자살 자작극을 감독한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의 리동성은 이미 천벌을 받아 감금됐고, 천명과 튀징은 위암과 림프암으로 사망했어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벌이는 반부패 운동 중에 장쩌민 무리들이 숙청되고 있는 건 사실 불법(佛法)을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했다가 응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장쩌민이 응보를 당할 날도 멀지 않았고 그날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불법(佛法) 수련자를 박해하는 일에 무지(无知)하게 가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죄를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갚을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살아야 해요.” 그들은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물을 것이 없자 곧 몸을 일으켜 떠나면서 말했다. “언니, 나중에 다시 올텐데, 또 문을 열어 주세요.” 내가 말했다. “오늘 진상을 여러분한테 똑똑히 말했어요. 불법(佛法)은 자비와 위엄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반드시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 하오(真善忍好)’ 이 아홉 글자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친한 친구의 기사회생

[대륙 투고] 나에게는 친한 동창이 한 명 있는데, 허베이 창저우에 산다. 그녀는 창저우 다화그룹의 엔지니어이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 친구와 그녀의 부모와 자매 네 사람은 몇 년 전에 모두 ‘3퇴(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했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2008년 여름, 50세가 넘는 그녀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쇼크를 받았다. 응급치료 후 창저우 병원 당직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서 두 개의 지지대를 안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녀 보다 상태가 가벼운 환자 2명은 수술 중에 모두 사망했다. 친척과 친구들이 문안을 왔을 때 그녀는 마치 그들과 영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녀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갑자기 내가 생각났지만, 나를 볼 겨를이 없었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가족들은 무슨 일이 남았느냐며 황급히 물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는 시트로 얼굴을 가리면서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외치는 소리에 이어 그의 심장에 연결된 기기에서는 막혔던 혈관 두 개가 모두 통한 상태가 나타났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책임졌던 베이징의 노(老)의사는 놀라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의사 노릇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구원되었다.

후에 그녀는 울면서 전화로 나에게 이 일을 말했고, 내가 자기를 구했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거야. 우리 사부님께 감사드려!” 그녀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